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11월 15일(금)

(윤력 10월 15일)

Пятница

15 ноября 2024 г.

№ 44 (12111)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1월 16일(토) 러시아에서 삼보의 날을 기념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삼보·유도 스포츠학교.

(이예식 기자 촬영)

사할린주 겨울철 공공서비스 준비상태,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점검

사할린주의 겨울철 준비가 완료됐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풍설과 영하 기온의 조건에서 도로 및 공공서비스의 업무 준비상태를 면밀히 점검했다고 사할린주 정부 측이 전했다.

주지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 '표도로브' 건축자재 공장을 방문해 도로와 주택가 제설을 위한 장비를 검사하고, 공공 및 도로 서비스 관련 기업의 대표들과 만남을 가졌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는 거리 약 370km에 달하는 448개 도로의 겨울철 유지보수를 위해 6개 지방의 공공서비스 기업들, 222명의 근로자들, 498대의 특수장비 차량이 확보되었고, 제빙을 위한 제설용 소금 7천 톤과 3,100m³의 모래도 준비되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지난해는 강한 풍설로 심각한 난관에 봉착했었다. 우리는 다가오는 새해를 최대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장비 차량들을 친환경 가스연료 구동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벨로루시의 '암코도르' 기업과 함께 사할린주를 위해 특별히 친환경가스로 구동되는 장비 차량계열 개발에 대한 협상도 언급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알렉세이

림사 부시장은 모든 하청업체들은 필요한 장비와 자원을 갖고 있고, 이 작업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다고 강조하며 "지난해 1월의 대대적 풍설 경험을 감안해 제설작업의 처리방식을 완전하게 하도록 했다. 현재 도심으로부터 외딴 지역들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장비 차량들을 외딴 지역들로 미리 보낼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주내 관리회사들의 대표들과 만남에서는 겨울철 주택가 유지 관리문제가 논의됐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은 시민들의 생활 편리를 우선적으로 강조하며, 제때 제설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상기시켰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갓 내린 눈을 신속하게 치우기 위해 관리업체들이 소형 제설장비를 더 적극 이용하도록 촉구했다.

사할린 지역에는 겨울철 도로 유지 보수를 위해 총 1059대의 특수장비 차량이 준비되었고, 지역에 약 930km의 차량 도로 제설작업을 위해 418대의 제설장비 차량이 제공된다. 특수장비 차량과 제빙 자재는 100% 준비가 완료되었고, 전 지방에서는 제설작업반이 구성되었으며, 주택가 제설작업을 위한 장비들이 준비되었다.

사할린의 기업들, 중국 수산업박람회에서 자사 제품 발표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로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제27회 국제수산업박람회가 11월 7일(목) 막을 내렸다. 사할린 지역 수출업무지원센터는 이에 전시장 제공 및 스탠드 설치, 협상 조성으로 사할린 수산업기업들을 지원했다.

수출업무지원센터의 알렌찌나 비츠코와 부국장은 "이번 박람회 참가는 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온 가장 규모가 큰 고객들에게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멋진 기회였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폴란드에서 온 외국 바이어들과 협상을 진행하여 수출과 협력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말했다.

사할린주 공동전시대에서 4개 기업-'퍼시픽 피쉬 리소스'와 '아시아포', '그라니스', '오케안 프로덕트(해산물)'-들이 자사 제품을 전시했다.

약 1300m²의 러시아 연방 국립 전시관 구역에서는 50개 이상의 기업들이 자사 제품과 기업의

성과를 발표했다. '아시아인포'회사의 아르쎄 포타렌코 사장은 "칭다오 박람회에서 우리는 새로운 고객들과 협력자들을 만나 이들과 이미 사업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또한 여러 각국에서 온 동료들과 교류하며 많은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다. 박람회는 수산업계에 상당히 중요한 행사로서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추세를 알 수 있었고, 흥미로운 신제품도 보았으며, 전 세계적 전문가들과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역 수출업무지원센터는 '모이 비즈니스(나의 사업)'의 체계에 포함되어 있으며,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모든 단계에서 사할린의 기업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이 업무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제 협력과 수출>, <중소기업> 국가기획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사할린주에서 이 기획의 구현을 감독하고 있다.

단신

알렉세이 림사, 사할린주 정부 부총재로 이임

유즈노사할린스크 알렉세이 림사 부시장이 2024년 11월 19일부터 새로운 직위로 이임된다. 그는 향후 5년 임기의 사할린주 정부 부총재로 임명되었다.

해당 지명에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11월 13일에 서명한 가운데 현재 림사 부시장의 직책은 임기 동안 유지된다.

사할린주, 대학생들을 위한 네웰스코이 장학금 생겨

사할린주에서 이제 겐나지 이와노비츠 네웰스코이의 이름으로 성적 우수 대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사할린주 정부 측이 전했다.

장학금은 학생들에게 매월 3만 루블 정도를 지급한다. 장학금을 받는 조건은 국가수능시험 필수과목에서 최상급 점수를 받아야 하고, 대학 입학 전에 학생 올림피아드 우승의 개인적 성과가 필요하다.

대학생의 성적이 '최고' 또는 '우수'일 경우, 또한 공인된 학술적 출판물이나 콘퍼런스 자료에 발표물이 있을 경우 2학년 이상 올라가거나 다른 학과로 옮길 시에도 장학금을 받을 권리가 유지된다. 또한 전 러시아 대회 및 여러 경연과 국제올림픽아드 우승 전적, 장려금 획득은 장학금 수여 요건에 고려된다.

코르사코브 제1호 학교 식당, 러시아에서 우수 급식 중 하나로 인증

2024년 11월 초 전국 학교 급식 간 경연 대면 단계의 준결승이 진행됐다. 이 경연에 전국 75개 지역에서 1백여 개소 학교들이 참가한 가운데 코르사코브 중학교가 최종 결승전에 올랐다.

11월 12일(화)에는 러시아 연방 교육부에서 이번 경연의 총결을 발표했는데 코르사코브 중학교가 <도시 학교 우수 급식> 부문에서 2위를 차지했고, 1위는 소치 시의 김나지아가 차지했다.

코르사코브 제1호 중학교는 학생들의 식단 구성에 남다른 접근방식을 갖고 있다. 학생들을 위해 영양사들이 두 종류의 메뉴를 개발했다고 전해졌다.

이 학교 급식 식당은 사할린주 교육부의 품질인증 마크가 표시되어 있다.

새고려신문

2025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5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계속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92.94 루블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새고려신문 75주년 기념 <독자와의 만남>, 안산 고향마을에서 개최

한국으로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는 4천여 명이다. 그중 다수가 새고려신문 독자들이다.

지난 8일(금) 한국 안산 고향마을 복지관 회의실에서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새고려신문 75주년 기념 '독자와의 만남' 행사가 개최되었다. 새고려신문사 주최, 고향마을 노인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 행사에는 고향마을 주민 외에도 인천, 김포, 파주 등지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자들이 참석했다.

사할린동포노인회의 김 마리나 부회장은 이날 권경석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 회장, KIN(지구촌동포연대) 최상구 대표, 사할린동포출신 대한고려인협회 정영순 회장 등 귀빈들을 소개하고 이 자리를 조성한 안산 고향마을 주흥춘 노인회장을 소개했다. 주 회장은 고향마을에서 새고려신문 75주년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참 기쁘다며 참가자들에게 환영사를 전한 가운데 새고려신문사 배 워토리아 사장(편집장 겸 발행인)이 답사를 전했다. 배 워토리아 사장은 이 자리에 반가운 얼굴이 많으며, 사할린의 한민족지를 소개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했다. 새고려신문 독자들이 아니었으면 우리 신문은 계속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독자들 덕분에 지금의 새고려신문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배 사장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화면으로 새고려신문의 75년의 역사와 신문사가 개최했던 행사와 기획들을 소개했다.

1949년 6월 1일 '조선노동자'제1호로 처음 발행된 신문은 1961년에 '레닌의 길'로 개칭되었고, 199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새고려신문'으로 발간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소련시대,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그리고 현재 신문사가 다루는 문제들을 이야기했다. 또한 신문사가 주관한 가장 대중적이고 역사적인 한국 인기가수들의 첫 위문 공연(1990년)을 비롯해, 개최하는 문예콩쿠르, 백일장, 사진전, 미술전, 공연, 작가들과 만남 등등 기획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전했다.



이날 배 워토리아 사장은 만남에 참석한 사할린 한민족지 첫 호부터의 애독자이신 전채련 할머니께 선물을 전달하고, 새고려신문사를 늘 뒷받침하는 안산고향마을 노인회 주흥춘 회장·김 마리나 부회장, 신문사를 협력하고 기사를 투고하는 권경석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 회장, 최 빅토리아 작가, 인천대학교 초빙교수인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 회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또한 이번에 러시아어 에세이 공모에서 상을 수상한 영주귀국자2세인 소명수(1 등), 김 마리나(3등), 김원자(3등)씨에게 상장과 상금을 전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독자와의 만남에서 상장과 감사장을 받은 분 모두가 새고려신문 75주년을 축하하고, 신문과 관련한 따뜻한 소감들을 표명했다. 이날 문헌에서 온 전국 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 인문학 부회장은 사할린의 한민족지와 관계가 남다르다며 신문사에서 아버지가 일하셨다고 하고, 신문의 소중한 역할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길 기원했다.

또한 KIN(KIN)의 최상구 대표는 이날 방금 인쇄된 '세상에 하나 뿐인 달력 2025'를 몇 부를 참석자들에게 나눠 드렸다.

(본사 기자)
(사진: 강 알렉산드르)

특별한 아이들의 '행복한 엄마'

얼마 전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장애아들의 어머니들을 위한 <행복한 엄마>뷰티 및 모성 축제가 진행되었다. 이 축제는 '빅토리아'장애인인권 비영리 단체의 이민자 회장의 발의로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행정부의 지원 아래에 개최되었다. 본사 배순신 기자는 이에 대해 이민자 회장에게 알아보았다.

" 휴일, 주말, 점심시간도 없이 매일 쉬지 않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어머니의 노동 가치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자녀를 둔 어머니의 노동은 '우주적인' 노동으로 비유할 수 있죠. 그러면 가족, 주변 환경, 사회에서 이러한 노동에 대한 지원도 그만큼 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는 어머니들이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여성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참가자들의 심리적 상태를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우아함과 아름다움은 물론 지성, 재능, 자신감까지 우리 엄마들에게 모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축제는 여러 단계로 구성되었고 개막은 8월 30일 '액티브 교육'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2명의 여성 참가자들은 두 달 동안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한글'창작회(대표 배 안젤라)와 한인문화센터 소속 '희망'무용단(단장 한덕순)의 여성분들과 가졌는데 참가자들이 호기심이 많았어요. 배 안젤라 '한글'창작회의 회장은 한민족 의상의 역사에 대해 들려주었고, 그리고 '희망'무용단 단원들은 우리 엄마들에게 부채춤의 기본 동작을 가르쳐주었어요. 민족 의상도 입어보고, 춤을 출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실제 왕비처럼 한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참가자들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도시 최고의 패션업계 전문가들과 협상하여 여러 수업을 받을 수 있었죠. 우리 참가자들은 패션 산업 협회의 협조로 심리적 지원 및 명상의 기초, 의상 스타일, 메이크업 등 다양한 마스터-클래스에 참석했습니다.

마지막 포토 세션도 이곳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전문 사진 포즈 및 패션



쇼 'MARRU MODELS' 학교에서 각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개성을 보여주고, 자신을 드러내고, 멋진 포즈도 취하고, 사진에서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아름답게 보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축제의 일환으로 '고르니 워즈두흐' 스포츠 관광단지 아래 역에서는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축제 참가자와 '빅토리아'단체 회원들의 가족을 위해 피트니스 트레이너 마르가리타 프라브츠크와가 수업을 진행했고, 어린이들을 위한 모양 풍선 만들기 마스터 클래스와 작은 콘서트, 다과회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슴농장(로즈-아그로)에서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여성분들이 주최한 '뽀뽀 만들기'요리교실에도 참석했습니다.

또한 이곳에 가족과 함께 좋은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가 협조했습니다. 엄마들이 준비한 간식인 판세를 먹고, 아이들과 아빠들은 동물원 치료과정에 참여하며, 농장을 둘러보고, 신나게 관람을 즐기며, 아이들은 '사할린의 뼈체뉴슈키' 회사가 제공하는 뽀뽀를 먹었습니다.

10월 30일 축제의 폐막식이 있었는데 이날 모든 참가자들은 자신을 훌륭하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이날 주최자, 전문가 파트너, 후원자들 모두가 어머니 참가자들을 사랑과 배려로 감쌌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아름다움을 느끼고,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며, 걱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단체와 후원자분들의 친절과 호응에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엄마' 축제는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되었지만 앞으로 연례 행사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 모 저 모

신생아를 위한 아동용품비 지급

사할린과 쿠릴열도에 750 이상의 가정에 유모차를 비롯한 아동용품 구매에 지역 예산의 자금 지원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고 주 정부 측이 전했다. 이러한 지원은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활비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2명의 자녀를 키우는 젊은 엄마인 엘리나 웰리츠코는 이러한 지원 덕에 갓 출생한 자신의 자녀를 위해 유모차를 구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올해 이 지원금 명목으로 1천 90만루블리가 배정되었고, 신생아 용품은 최대 1만 루블리까지, 유모차는 2만 루블리까지 실제 지출비용의 규모로 제공된다.

사할린주는 '인구통계학' 국민기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녀를 둔 가정 지원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사할린에서 다자녀 가구에게는 아동용품비 지급과 더불어 주택 건축 및 용품 구입에 50%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엄마가 된 여성들에게는 주 모성자금이 지급된다. 그 외에도 사할린의 가정들은 분기별, 월별 일시 지원금을 받고 있다.

Bolee 750 сахалинских семей получили выплаты на товары для новорожденных

Bolee 750 семей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осполь-

зовались возможностью получить финансовую помощь от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на покупку детских товаров, в том числе колясок.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

Эта мера поддержки направлена на семьи с низким доходом, чей среднедушевой доход ниже прожиточного минимума.

Молодая мама Элина Величко, воспитывающая двоих детей, рассказала, что благодаря этой помощи она смогла приобрести коляску для своего новорожденного ребенка.

В этом году на выплаты было выделено более 10,9 млн рублей. Помощь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в размере фактически понесенных расходов: до 10 000 рублей на товары для новорожденных и до 20 000 рублей на детские коляск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деляется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поддержке семей с детьми, что способствует достижению целей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Демография". Помимо выплат на детские товары, многодетные семьи на Сахалине могут компенсировать 50% стоимости при покупке или строительстве жилья.

Также, сахалинским и курильским женщинам, ставшим мамами, выплачивается областной материнский капитал. Кроме того, островные семьи получают ежеквартальные, ежемесячные и единовременные выплаты.

4만여 명의 사할린 학생들, 견학

지역 아동 사회관광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구성된 견학에 사할린의 학생들 3만 7천여 명이 참여했다고 사할린 지역 광부가 전했다.

가을 프로그램에 우글레고르스크와 오하 지역의 학생들도 참가했다. 이들은 도심 호텔 중 한 곳에 머물며, 학생의 공백 시간은 흥미로운 프로그램들로 채워졌다.

사할린주 관광부 아르쎈 라자레브 장관은 "현재 우리는 외딴 지역의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들을 위해 호텔에서 숙박을 포함한 특별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는 우리 어린 학생들의 여행의 편리를 위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10월에는 우글레고르스크 지역에서 온 그룹에게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11월 중순에는 오하에서 온 고등학생들이 유즈노사할린스크에 도착했다. 이들은 '사할린주 112 - 비상 호출시스템 관리센터'의 구호활동에 따른 직업 견학을 비롯해 사슴농장과 극동지역에서 가장 큰 '아와 시티' 워터파크를 방문하고, '애국자'라는 흥미로운 게임도 진행했다.

Почти 40 тысяч сахалин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посетили экскурсии

На экскурсиях, организованных в рамках регион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детского социального туризма, побывали 37 тысяч сахалин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туризма.

Осенью к программе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также юные островитяне из Углегорского и Охинского районов. Их размещают в одной из городских гостиниц, а времяпровождение детей скрашивают интересной программой.

(8면에 계속)

새고려신문 75주년 기념 문예콩쿠르 수상작

사할린 사람의 사고방식이란?



2024년은 러시아에서 가족의 해로 선포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에게 이 글을 바칩니다. 우리 아빠는 쓰련 극동지역, 연해주, 테르네이 구역, 빨라스톤 농촌의 출신이시고, 엄마는 사할린섬 우글레고르스크 시 출신이시며, 저는 동생과 함께 사할린 우글레고르스크시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리고 계속 극동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저는 토착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할린 사람의 사고방식'이란 것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도 오랫동안 사할린에서 생활하면 그 지역 토착인의 특징과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 아빠는 33년 동안 사할린에서 생활했으니 사할린섬 주민의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십니다. 저는 사할린 동포 3세입니다.

오래된 역사적인 상황에서 사할린 섬의 풍경은 사람들에게 그 지역의 전형적인 성격의 특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사할린 사람들은 다른 국적이나, 종교나, 문화나, 생활방식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관용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할린 사람들은 타인을 보면 자신을 보듯이 똑같은 마음으로 손님을 인식하고 대합니다.

둘째로는, '사할린의 차별적 특성은 세계 최고입니다!' 라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맛있는 빵은 보스냐꼬보나, 레소고르스크에서 만든 빵이었고(бошняковский, лесогорский хлеб), 우유크림, 프리마, 라젠카, 응유(сметана, сливки, ряженка и творог) 같은 유제품은 우글레고르스크에서 만든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할린섬 주민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특징은 사할린섬에서 수십 년간, 여러 세대가 어울려 살면서 서로서로 오랜 고향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그곳에서 태어난 후 부모님과 이웃들과 함께 살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셋째로, 대부분의 주민들은 진정으로 지역의 아름다운 경치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곳이 쾌적하다고 느낍니다. 사할린섬의 왼쪽을 보면 산림이고, 오른쪽으로는 바다가 보이는 땅입니다. 바다는 우리 모두에게 삶과 생계를 이어가게 해줍니다.

사할린섬은 최고의 땅이며, 사할린섬의 땅 중 가장 좋은 도시는 우글레고르스크시입니다. 우글레고르스크시에서는 밤 1시에 춤을 추고도 춤춘 곳에서부터 집까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었으며, 비싼 액세서리를 낀 여성이 홀로 <메리디안> 문화회관에서 새벽까지 해안가를 따라 걸어도 아무런 무서움 없이 집까지 걸어가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40년이 지났습니다.

언젠가 제가 엄마에게 "엄마에 대한 글을 쓰고 싶다." 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무엇을 뛰어난 걸 했나? 그저 일반 생활한 것뿐인데."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추억(어머니의 이야기)
5월에 바닷가로 가면 우역(모이와)과 물고기과 파도에 밀려와 해변가에 별떡별떡 튀고 있는 생물고기를 우리는 맨손으로 주어서, 바구니에 담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소금에 절인 후에 밖에서 말렸습니다. 물고기를 말리는 장면은 꼭 볼 만한 광경입니다! 그 시기에는 생선(꼬리쉬카)을 잡아 집집마다 건조하느라 온 도시가 물고기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이

2위, 이(니) 잔나, 1968년생, 블라디보스토크
생선 냄새는 생오이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이 고기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방 말로 칠림이라고 부르는 새우를 잡으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우글레고르스크시에서 우리는 나무로 만든 집에서 살았고, 그 후 유즈노사할린스크시로 이사해서 작은 단독집에 살았습니다. 주소는: 프레찌야 꼬롱까야였습니다. 국경수비대원들이 선사한 책이라는 독일 셰퍼드 개가 집마당을 지켰습니다. 텃밭이 있어서 양배추, 감자, 당근 및 모든 채소를 재배했습니다. 보통 어머니는 밭에서 일하셨습니다. 프레찌야 꼬롱까야 거리에서 많은 러시아 가족들이 살고 있었고, 그 지역에서 우리가 유일한 조선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저와 같이 놀았던 러시아 아이들은 나에게 러시아 이름으로 '나타샤' 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처음에 나는 러시아 이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점차적으로 같이 놀면서 내 이름이 '수자' 라는 것을 알고는 '수자야 (판사)' 라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간 후 가족사정으로 우글레고르스크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글레고르스크시에서 계속 살았으며, 조선 7년 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친구 니나와 함께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범전문학교에 공부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 우리는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교복만 입고, 다른 옷은 없고, 배낭 속에 비누, 칫솔, 수건, 솜담요만 넣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기차를 갈아타고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도착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작은 아버지가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살고 계셨습니다. 작은 아버지의 집에는 방이 하나밖에 없어서 저는 다락방에서 자리를 잡고 입학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어(받아쓰기), 산수 및 음악 듣기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악기를 연주한 적이 없지만 음악 소질이 있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사범전문학교에 입학해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학창 시절과 직장.



1960년 유즈노사할린스크 사범전문학교 합창단. 아코디언 반주 전두한 선생님. 지휘자 김영진선생님

어느덧 학창시절 4년이 흘렀습니다. 사범전문학교에는 다른 악기가 없어서 공부하는 동안 만들린을 연주하는 것을 배우며, 민속악기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우리 오케스트라는 전체 4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도자로서 지휘자인 게오르기 표도로비치 베르드니꼬브와 아코디언 연주자는 작곡가인 작은 아버지(전두한)였습니다. 우리 아마추어 예술단은, 선거, 연구소 및 군부대 등에서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사범전문학교의 합창단과 민속악기오케스트라는 예술 콩쿠르에서 항상 음악전문학교를 이기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범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고향인 우글레고르스크시에 돌아오니, 조선 7년 제 학교가 개편되어, 8년제 학교가 되었고, 학교의 수업은 러시아어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모스크바대학교에 입학할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무국적자였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허가는 시베리아 이르쿠츠크까지였습니다.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딸 이 잔나 씀
(편집부에서 글 교정함)
(다음 호에 계속)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부모 / 김소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이야기 들려라
나는 어찌면 생겨 나와
이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 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라

"언젠가부터 단풍 철이면 단풍 구경을 빼놓지 않고 즐기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언젠가부터 단풍을 바라보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는 시선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무슨 고백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형형색색 물든 단풍을 보고 있노라면, 무작정 하품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우선 들지요. 물론 신기하지요. 하지만 새파랗고 푸르던 잎새들을 떠올리면 이건 누가 뭐래도 죽음의 빛깔인 겁니다. 삶을 찬양하고 죽음은 저주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죽음을 제 폰 카메라에 대놓고 연신 찍어대는 건 어찌지 몹시 잔인하며 하릴없는 것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시뻘겋게 말라 비틀어져 좀 먹어 있거나 아주 셋노랗게 죽어가고 있는 낙엽들을 본다는 건 센터멘털한 감정의 문제가 아닌 죽음의 철학에 가까울 테니. 죽음은 어찌면 삶의 미련, 이를 두고 마냥 아름답다, 죽여준다고 찬미할 수만은 없었던 거지요. 적어도 제 시선으로는.



물리학을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염색소 활동이 이제 영양분을 더 생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거지요. 나무로 봐서는 이제 잎사귀같은 건 별 필요가 없는 노릇이었겠고. 염색소는 감소하고 또 감소하며 숨을 꼳팍꼳 조르고 있었겠지요. 이런 메커니즘으로 굉장히 요상한 화학 반응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던 겁니다. 지구라는 거대하지만 또 어떻게 보자면 궤외계 아주 콤팩트한 행성에서의 이런 메커니즘 덕분에 숲은 유지가 되고 우리는 늘 찬양을 하며 박수를 건넸겠지요. 결국 지구는 온도며 습도를 잘도 유지해 나갔을 테니, 이런 의문을 던지는 제가 오히려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할 만한 카니발의 형형색색을 이런 의미로 '아름답다!'라고만 말 할 순 없다는 생각인데요. 어휴, 쉬운 말을 이상하게 돌린 기분인데, 아무튼.

속초와 하조대, 용평과 월정사로 이어진 단풍 여행은 물론 즐거웠습니다만, 어찌면 월정사 단풍길을 걷는 사이사이 도스토예프스키 Достоевский의 글이 멈칫멈칫 떠올랐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Братья Карамазовы> 중 '아름다움이라는 놈은 무섭고 끔찍한 것이야! 일정한 잣대로는 정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무서운 거야. 왜 그런지 신께서는 인간에게 자꾸 수수께끼만 던져주신다니까. 아름다움 속에서는 양쪽 강 언덕이 하나로 만나고 모든 모순이 함께 살고 있어. 나는 교육이라고는 전혀 못 받았지만, 이젠 꽤 연구를 많이 해서 생각해낸 거야. 실로 신비는 무한하디까! 이 지구상에는 어지간히도 많은 수수께끼가 인간을 괴롭히고 있어.' 뼈뺀하긴 하지만, 너무나 훌륭하며 미학적이며 아무튼시간에 그럴듯한 이런 표현들에 휩싸여 살다보니, 남들 모두가 환호성을 지를 때, 저는 그만 하품 세 번을 했나 봐요. 아, 김소월 시의 미학을 언급하려다 도스토예프스키 얘길하고 말았네, ㅋ."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재외동포청-서울교육대학교,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 인식 확산과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교육을 위해 협력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국민들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재외동포들의 정체성 함양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교육대학교(총장 장신호)와 협력한다.

두 기관은 11월 11일(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에서 이상덕 청장과 장신호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해외 한글학교 역량 강화를 위한 한글 교육 등 동포 교육 발전 협력,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적 협력 및 프로그램 개발 협력, ▲기타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 인식확산으로 국민과 재외동포 사회 유대감 증진을 위한 협

력 등이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외 한글학교 역량강화와 함께 재외동포청이 추진하고 있는 국내 교과서에 재외동포 이해교육 반영, 초·중·고·대학교 대상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등 교육적 측면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 인식 확산 사업이 지속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상덕 청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국내 교과서를 통해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한글학교, 모국방문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 Приморье найдено надгробие участника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В посёлке Тихом Надеждинского района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в ходе строительных работ по расширению дороги, ведущей на сельское кладбище, было обнаружено надгробие участника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бойца корейского Сорбаткванского партизанского отряда. Надгробие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тяжёлую каменную плиту внушительных размеров, на котором высечена надпись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1904-19년 고려 해방운동의 조직자이며,

1919-22년 연해도내 (술발판)에서 쏘베트주권을 위하여 고려붉은의병의 조직자이며,

1923-32년 농촌경을 사회주의의 경리로 개척한 건설사업에 용* 조직투사이었다.

빨치산색치야 추최로 동무들이 발표 1/V-35

В 1904-19 годы – член корейско-го освободительного движения

В 1919-22 годы – участник Сорбаткванского красного партизанского отряда, борец за установление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1923-32 годы – активный участник организации колхозного движения

От товарищей-партизан. 1 мая 1935 г.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на плите не указано имя владельца могилы, указанные факты совпадают с этапами биографии командира корейского партизанского отряда Хван Вон Хо (?-1932). После установле-

ния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он стал первым председателем сельхозартели «Консан»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ая жизнь») в корейском селе Удугуу близ станции Раздольной. В 1972 г. Удугуу было переименовано в посёлок Тихий.

Надгробный камень был найден у основания фундамента разрушенного дома. Очевидно, после 1937 г. он был перенесён с кладбища и использован для укрепления жилища. Само место захоронения Хван Вон Хо пока не найдено.

Информация об уникальной находке уже успела распространиться не только в Приморье, но и в Южной Корее, где Хван Вон Хо считается национальным героем. В 2006 г. в Корее он был награждён орденом «Любовь к Родине», а его потомки разыскиваются для вручения им этой награды.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адгробная плита передана на хранение председателю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Валентину Петровичу Паку, благодаря инициативе которого надгробие удалось своевременно сохранить.

О потомках Хван Вон Хо известно, что у него было как минимум два сына. Первый, Василий Хван Шухак, был кадровым военным, участником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и пропал без вести на фронте в августе 1942 г. Второй сын Илья Хван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956 г. проживал в Чимкенте Казахской ССР.

(Источник: <https://t.me/saramkor>)

Борцы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возвращаются на родину

Сеул, 13 ноября – ИА РУСКОР. Останки борца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Ли Ук Гёна, известного по автобиографическому роману «Течет река Ялуцзян», в котором описывается жизнь во время японской колонизации в 1910–1945 годах, вернуться домой из Германии на этой неделе, спустя 105 лет после того, как Ли покинул страну, сообщило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делам ветеранов.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останки Ли должны прибыть в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эропорт Инчхон в субботу после поминальной церемонии и церемонии прощания, которые пройдут на могиле Ли в южногерманском муниципалитете Графельфинг. Церемония похорон состоится в воскресенье на Национальном

кладбище в Тэджоне, в 140 километрах к югу от Сеула. Ли родился в Хэчжу, в современно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провинции Южная Хванхэ, в 1899 году. Он присоединился к движению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но позже, в 1919 году, был вынужден эмигрировать в Шанхай. В 1920 году Ли отправился в Германию, где он помогал повышать осведомленность о движении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и опубликовал роман «Течет река Ялуцзян», который позже был включен в немецкие школьные учебники. Ли умер в 1950 году.

Южная Корея репатрирует останки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с 1946 года.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останки Ли станут 149-ми, которые будут репатрированы.

В РК прошёл единый госэкзамен

14 ноября в РК состоялся ежегодный еди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экзамен (ЕГЭ), по итогам которого определяется потенциаль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поступления в вузы. Для участия в экзамен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ись 522.670 человек. Это на 18.082 человека бол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65,2% экзаменуемых составляли выпускники старших школ этого года, а 31% участников экзамена – выпускники прошлых лет.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разования, по всей стране были открыты 1.282 экзаменационных пункта.

ЕГЭ проводился по пяти предметам: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математика,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история Кореи и предмет по выбору. В утренние часы было увеличено количеств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чтобы исключить опоздания на экзамен.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и муниципа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в том числе, Корейская биржа и банки, начали работу на час позже обычного, чтобы уменьшить пробки на дорогах. Единый госэкзамен проводится каждый год, в третий четверг ноября.

(KBS World)

Душевно и тепло было на встрече в Ансане

8 ноября 2024 г. в квартале Кохян Мауль г. Ансан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где проживают сахалинские репатрианты,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главного редактора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икторией Бя с читателями газеты. Мероприятие было приурочено к 75-летию сахалинской газеты. На встречу собрались не только сахалинцы, проживающие в Ансане, но и из Инчхона, Кимпхо, Пхадю и т.д.

В этот день Виктория Бя посредством презентации рассказала о 75-летней истории газеты, у которой три имени. Сперва это была газета «Корейский рабочий (Чосон нодонда)», в 1961 г. газета была переименована «По ленинскому пути(Ленины гилло)», а с 1 января 1991 г. и по сей день газета называется «Сэ коре синмун».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основные темы, которые освещались в газете, мероприятия и проекты,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которых стала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Один из самых запоминающихся – первый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й концерт южнокорейских певцов и артистов в 1990 г. Этот концерт проше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еще до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Редактор поблагодарила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Кохян Мауль г-на Дю Хун Чуна, за постоянную поддержку, а также за организацию дан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и вручила благодарственное письмо.

Самое главное, чем дорожит газета – это ее читатели. В Кохян мауль проживает бабушка Тен Че Рен – читательница с 1-го номера газеты. Такого верного читателя, который так дорожит нашей газетой, найти очень трудно.

Были вручены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людям, с которыми редакция очень плотно сотрудничает: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их репатриантов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Квон Ген Сок, писательница Виктория Цой, президент АКРК Жанна Тен, член правления 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Кохян Мауль Марина Ким и др.

На встрече присутствовал давний друг газеты – президент организации КИН Че Сан Гу. Именно эта организация занимается изданием столь любимого сахалинцами «Единого на свете календаря». В этот день он принес на встречу несколько календарей 2025 г., только что вышедшие из печати.

Виктория Бя вручила грамоты и премии призерам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приуроченного к 75-летию «Сэ коре синмун». Со Мен Су стал победителем, а Ким Марина и Ким Вон Дя – лауреатами 3-ей степени. Все они – представители 2-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приехали по программе переселения на ПМЖ в РК. А еще занимались на курсах «Пишем вместе», где вместе с писательницей Викторией Цой пробовали перо. Получились очень хорошие интересные работы, которые будут опубликованы на страницах газеты.

(Наш корр.)

От редакции: Встреча прошла в теплой дружественной атмосфере. Люди брали слово, благодарили, поздравляли. А еще писали посты в различных соцсетях. Мы решили опубликовать два из них.

Жанна Тен, президент АКРК:

В Корею меня часто спрашивают: кем я себя ощущаю? Где начинается наша идентичность? Ведь она не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только языком, на котором мы говорим. Идентичность ещё и тесно связана с общими воспоминаниями....

Сегодня я была на небольшом мероприятии в жилом комплексе Кохян мауль (고향마을) в Ансане, посвящённом 75-летию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Это издание уже 75 лет остаётся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чем-то большим, чем просто источником новостей. На ее страницах живут общие воспоминания - первый концерт южнокорейских артистов в 1990 году,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ажные выставки и конкурсы. Газета не просто фиксировала события, она формировала идентичность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사할린동포 정체성).



Сегодня около 4 тысяч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ернулись в Корею по программе репатриации. Но здесь, в стране предков, они не стали читать Чунан Ильбо (중앙일보) или ДонгА Ильбо(동아일보). Для них по-прежнему корейской газетой остаётся их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тому что только она способна вернуть их в общее прошлое, показать знакомые лица, оживить картины родных мест и рассказать о жизни, близкой и понятной до мелочей.

Это живое переплетение событий и чувств, которые остаются с нами и делают нас теми, кто мы есть. И пока есть такие символы, как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аша история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ся жить, несмотря на расстояния и времена.

Виктория Цой, писательница:

Мои родители всегда выписывали корейскую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 я помню, как удивлялась в детстве: «Неужели ее кто-то читает, вот эти непонятные иероглифы на серой бумаге?» Я была настоящей советской девочкой, отличницей, пионеркой, которой внушали, что Корея – это вражеская капиталистическая страна и все, что оттуда – чуждо.

Потом была перестройка, возрожд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тот самый легендарный концерт 1990 года на стадионе «Спартак», когда прилетели знамениты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певцы, и наши бабушки и дедушки пели и танцевали на поле стадиона. Сколько было радости, веры в будущее, надежд и планов!

Прошло немало времени с тех пор. В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е, как и во всей стране, произошли большие перемены. И наша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передает читателям не только новости, но и настроения общества, его надежды и тревоги. Полистайте газету прошлых лет – и вы увидите удивительный срез истории на ее страницах.

И есть одно событие, важнейшее для меня, когда пять лет назад газета объявила конкурс к своему 70-летию.

Я отправила свой рассказ, и он занял призовое место. Для начинающего писателя поддержка бесценна, когда тебя одолевают сомнения в том, имеешь ли ты право писать и интересно ли это кому-то. Я очень благодарна газете за тот конкурс!

И очень рада, что спустя пять лет рассказы участников мастер-класса «Пишем вмест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На мой взгляд, они очень хороши. Настолько, что если бы я сейчас участвовала со своим рассказом, то еще непонятно, кто бы победил! Спасибо участникам мастер-класса за их работы, за их талант и искренность.

Я поздравляю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с 75-летием, и конечно же, главного редактора – Викторию Бя.

Желаю процветания, и чтобы на страницах газеты было побольше добрых и обнадеживающих новостей. С праздником!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РК и ВОЗ проводят в Инчхоне Всемирный биосаммит

11-12 ноября в Инчхоне прошел Всемирный биосаммит на тему «Будущие инвестиции в здоровое и безопасное десятиле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и,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которого являются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РК и Всемир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ринимаем участие более 80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равительств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Они обсуждали способы гибкого и оперативного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 в област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сновываясь на уроках пандемии COVID-19. Как заявил в своём выступлении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РК Чо Гю Хон, южно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будет укреплять глобаль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ВОЗ для повыш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дновременно стимулируя инновации и инвестиции в здоровое и безопасное будущее.

Создан консультативный орган для переговоров с бастующими врачами

Правящая партия Сила народа создала консультативный орган с участие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медицин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для переговоров с врачами-интернами. Они не выходят на работу с февраля этого года, выступая против пла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увеличить приём в медицинские вузы. Забастовка привела к сбоям в работе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11 ноября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обрании состоялось первое заседание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го органа. Лидер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Хан Дон Хун в своём выступлении призвал главную оппозиционную Демократическую партию Тобуро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переговорам.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Хан Док Су, который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заседании, напомнил, что реформ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не только увеличение приёма в медицинские вузы, но и обеспечение врачами все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Он пообещал рассмотреть требования бастующих интернов об улучшении условий труда и выплате компенсаций за время забастовки.

Парламентская делегация РК посетит США

Южнокорейская парламентская делегация в составе депутатов от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и оппозиции посетит на этой неделе США, где встретится с близкими соратниками избранного президента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Как сообщили 11 ноября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обрании, делегацию возглавит председатель парламентского комитета по иностранным делам и воссоединению Ким Сок Ки. В состав делегации войдут бывший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Пак Чин и бывший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Ким Сон Хан. Делегация также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Девято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форуме РК-США,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18-19 ноября. Организатором форума является Центр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в Вашингтоне.

РК поможет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 борьбе с изменением климат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выделит в течение следующих трёх лет 3 млн долларов в Фонд борьбы с изменением климата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РК,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соглашение подписано 8 ноября в Астане. Фонд создан Азиатским банком развития, и РК участвует в нём в качестве члена-учредителя. Её вклад является самым крупным среди 11 стран, присоединившихся к фонду. Средства пойдут на поддержку энергетик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сохранения водных ресурсов стран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Как заявил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инвестиций в развитие министерства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РК Мун Чжи Сон, новый фонд откроет новое направлени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РК и регионом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Президент РК извинился за скандал, связанный с первой леди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принёс извинения за скандал, связанный с первой леди, и пообещал перестроит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дела. Выступая 7 ноября с телевизионным обращением к жителям страны, он склонил голову и сказал, что причина скандала – его собственные недостатки.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признал, что в течение 2,5 лет работы на посту президента он неустанно работал на благо народа, но «инициативы, начатые ради благополучия народа и будущего страны, могли вызвать дискомфорт, а проблемы, связанные с членами семьи, вызвали общественное беспокойство». Тем временем, Юн Сок Ёль выступил против законопроекта, предложенного оппозицией, о специальном прокуроре для расследования обвинений в адрес первой леди, а также опроверг её вмешательство в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парламентские выборы 2022 года. Своё отсутствие при оглашении бюджетного послания парламенту он объяснил неуважением со стороны оппозиции. Президент пообещал перестроит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дела таким образом, чтобы соответствовать общественным ожиданиям. Он сообщил также о предстоящих перестановках в кабинете министров и президент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RKI**

Пинг-понг по пхеньянски

Сеул, 9 ноября – ИА РУСКОР.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и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настольного тенниса (КТТА) готовятся отправить спортсменов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турниры по настольному теннису в Пхеньяне, который недавно был утвержден в качестве города-организатора. Согласно эксклюзивному репортажу газеты Hankook Ilbo,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ыступает за участие спортсменов в чемпионате Азии среди молодежи 2026 года и чемпионате Азии 2028 года, которые пройдут в Пхеньяне. Этот план может означать, что в 2026 году восходящие звезды, а к 2028 году и известные игроки, такие как бронзовый призер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2024 года в Париже Шин Ю Бин, смогут соревноваться в столице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ильное желание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ровести оба турнира было подтверждено на Генеральной ассамблее Азиатского союза настольного тенниса (АТТУ) в Астане, Казахстан, где ре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было единогласно одобрено, наряду с избранием вице-президента КТТА Ким Тхэк Су первым заместителем президента АТТ. Эта иници-

атива предлагает канал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 условиях обострения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после недавних действий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том числе запуска воздушных шаров с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ими листовками и воен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Россией. Чиновник из правительства, знакомый с процессом подготовки, сказал: «Известно,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очень хотела провести эти два турнира. Проведение обоих турниров одновременно — это необычно, и, похоже, это сделан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успех смешанной пары, завоевавшей серебряную медаль на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ах в Париже, как внутри страны, так и за рубежом».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воссоединению и эксперты по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читают это событие обнадеживающим.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заявили, что эта инициатива может послужить мостом для преодоления изоляции. Профессор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университета Донгук Ким Ён Хён также отметил, что это было благоприятным шагом на пути к снижению региональной напряженности.

Войти в тройку мировых лидеров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Сеул, 10 ноября – ИА РУСКОР. Южная Корея открыла в Сеуле свою национальную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ую лабораторию по искусственному интеллекту, которая станет центром глобальных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проектов в области ИИ. По словам министерства науки, страна стремится войти в тройку мировых лидеров в этой сфере.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к 2028 го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ланирует инвестировать в Национальную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ую лабораторию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94,6 миллиарда вон (68,2 миллиона долларов), чтобы помочь организации возглавить совместные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е проекты в области ИИ с глобальными партнерами, развивать таланты в области ИИ и создавать экосистему, объединяющую индустрию ИИ.

Ученые из Южной Кореи, США, Канады, Франции и других стран планируют проводить в лаборатории

совмест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области ИИ, в том числе изучать закон нейронного масштабирования и базовую модель робота. «Успешное создание и инновационная работа Национальной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лаборатори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станут новой вехой в развитии ИИ в стране», — заявил министр науки Ю Сан Им. Ранее в этом го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ыступило с инициативой повысить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ь страны в области ИИ и войти в тройку лидеров в этой сфере. В рамках этой инициативы в сентябр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учредило президентский комитет по искусственному интеллекту и совместную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ую лабораторию по искусственному интеллекту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Нью-Йоркски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В следующем месяце компания также планирует создать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институт безопасности ИИ для поддержки безопасной разработки и применения технологий ИИ.

Новое поветрие: студенты массово меняют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Сеул, 9 ноября – ИА РУСКОР. В прошлом году 235 первокурсников Сеуль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SNU), ведуще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Южной Кореи, бросили учебу, что стало самым высоким показателем за последние три года. Исключительно высокий процент отсева наблюдался среди студентов, изучающих естественные науки и инженерное дело, поскольку все больше студентов бросают учебу, чтобы пересдать национальный вступительный экзамен и поступить в медицинские вузы.

Уровень отсева первокурсников в SNU вырос на 46 процентов за последние два год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235 первокурсников — 6,5 процента из 3610 первокурсников — покинули университет, по сравнению со 161 (4,7 процента) в 2021 году и 204 (5,9 процента) в 2022 году. Отсев был сосредоточен на факультетах естественных наук и инженерии. С 2021 года по первую половину этого года 611 первокурсников SNU бросили учебу. Из них 187 (30,6 процента) были из инженерного колледжа, 127 (20,8 процента) из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коллед-

жа, 76 (12,4 процента) — из колледжа естественных наук, 62 (10,1 процента) — из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колледжа, 33 (5,4 процента) — из гуманитарного колледжа и 29 (4,7 процента) — из колледжа социальных наук.

«Студенты, бросающие Сеуль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ведущий вуз страны, скорее всего, стремятся поступить в высококонкурентные медицинские,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ие или фармацевтические вузы, которые требуют высоких академических результатов», — сказал Ли Ман Ки, глава Института оценки образования в Uway, агентстве по приему на различные вступительные экзамены в Корею. Как правило, первокурсники, планирующие пересдать экзамен и поступить в медицинскую школу, покидают SNU во втором семестре. Но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число студентов, бросающих учебу в первом семестре, растет: с одного в 2022 году до 11 в этом году. Эксперты предполагают, что на рост числа студентов, бросающих учебу в первом семестре, повлияло зая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 расширении приема в медицинские школы в феврале.

Конфискованные наркотики рассчитаны на 19 миллионов человек

Сеул, 10 ноября – ИА РУСКОР. СЕУЛ. За первые девять месяцев 2024 года количество попыток ввоза наркотиков в Южную Корею выросло на 24 процент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годом.

По данным Таможенной службы Кореи (KCS), в период с января по сентябрь было выявлено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623 случая попыток незаконного оборота наркотиков по сравнению с 501 случаем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По данным агентства, за указанный период объем изъятых на границе наркотиков вырос на 16 процентов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и составил 574 килограмма. Конфискованные объемы могут быть использованы 19 миллионами человек одновременно. Эти данные означают, что за первые девять месяцев года власти ежедневно выявляли два случая контрабанды, или 2,1 кг наркотиков, отметили в KCS. «Мы наблюдаем рост числа мелких случаев контрабанды, поскольку все больше людей пытаются незаконно ввозить наркотики для собственного потре-

бления», — заяв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Крупномасштабные попытки также участились после пандемии COVID-19, несмотря на ужесточение пограничного контроля, добавил чиновник. Из общего числа отправок 51 процент были отправлен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очтой, 25 процентов — экспресс-грузами, а 23 процента — авиапассажирами. В частности, количество попыток контрабанды наркотиков по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очте выросло на 41 процент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хотя объем контрабанды сократился на 40 процентов из-за заметного роста числа мелких случаев контрабанды, сообщает агентство. В разбивке по видам на метамфетамин приходилось 59 процентов от общего количества изъятого, или 338 кг, за ним следуют кокаин (11 процентов от общего количества) и конопля (8 процентов). По странам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аиланд возглавил список, заняв 41 процент от общего объема, а США заняли второе место с 19 процентам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рил готовность коммунальных и дорож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к зиме

Глав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етил завод строительных материалов имени Федотов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Губернатор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 готовность техники, предназначенной для расчистки дорог и дворов, и встретился с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коммунальных и дорож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Всего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насчитывается 448 автодорог общей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почти 370 км. В предстоящую зиму работу по их содержанию будут обеспечивать шесть муниципаль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Поддерживать порядок на дорогах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будут 222 рабочих, 498 единиц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й техники. Для борьбы с гололедицей заготовлено 7 тысяч тонн технической соли и 3,1 тысячи кубометров песка.

Прошлые зимы с мощными циклонами и метелями стали настоящим экзаменом для всех служб. К новому зимнему сезону необходимо подойти максимально подготовленными, чтобы наш город был чистым, ухоженным и благоустроенным. Мы специально ездили в Беларусь и решали вопрос обновления спецтехники. Хотим, чтобы она работала на газе, и чистота нашего города обеспечивалась экологичными и экономичн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помним, 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ел переговоры с крупнейшей в СНГ машиностроительной компанией «Амкордор». Белорусское предприятие разработает специально дл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линейку техники на газомоторном топливе. В том числе – универсальный погрузчик, экскаватор, автогрейдер, погрузчик с комплектом навес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Шесть предприятий в рамка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контрактов будут обслуживать город и села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Все подрядчики с опытом работы более 10 лет. Все с техникой, ресурсами, инертными материалами, а главное – с людьми и желанием работать. Январский снежный циклон в прошлом году дал нам хороший опыт. Мы отработали алгоритмы расчистки и улучшили их. К примеру, договорились, что теперь спецтехника будет отправляться в отдаленные села во время циклонов, чтобы они не оказались отрезанными,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вице-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лексей Римша.

На заводе имени Федотова глава региона и мэр города также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ы зимнего содержания дворов с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управляющих компаний.

Мы собрали руководителей крупных управляющих компаний, в чьем ведении находится порядка 80 процентов всего жилого фонда города, 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одряд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задействованных в обслуживании улично-дорожной сети. Для нас комфорт горожан, в том числе и в зимний период, – безусловный приоритет. Поэтому напоминаем управляющим компаниям и подрядчикам о требованиях к расчистке, а также об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несвоевременную уборку улиц и дворов, – отметил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 1 декабря по 1 апреля коммунальным предприятиям было выдано 181 предостережение.

Нужно провести работу над ошибками, чтобы не повторять их. Все управляющие компании получили малую снегоуборочную технику. Пользуйтесь роторами, когда снег еще идет, пока он пушистый и легкий. Когда его затопчут, без тяжелой техники уже не обойтись, – добав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были разработаны стандарты зимнего и летнего содержания дорог и дворов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Все процессы упорядочены, техника идет в четкой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сти, качество уборки оценивают по строгим критериям. Если оценка неудовлетворительная, то работы подрядчику не оплачиваются. Благодаря такому подходу удалось сделать чище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 другие горо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для зимнего содержания местных дорог подготовлено 1059 единиц техники. Сеть автодорог регионального значения насчитывает почти 930 км. Поддерживать порядок на них будут 418 единиц снегоуборочной техники, в том числе автогрейдеры, снегоочистители, погрузчики, автосамосвалы. На сегодня готовность спецтехники и противогололедных материалов составляет 100%.

Кроме того, во вс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у коммуналь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имеется достаточное количество единиц техники для расчистки дворов в период снегопадов. Вся она приведена в готовность, сформированы бригады рабочих, которые будут задействованы для расчистки снега.

Сахалинский джазовый оркестр дал первый концерт

В рамках VIII Сахалинского джазового фестиваля, где выступили маэстро Игорь Бутман, Даниил Крамер, Сергей Мазаев, зажглись новые звезды. На сцену с сольной программой 9 ноября впервые вышли музыканты джазового оркестра Сахалинской филармонии. Среди зрителей в новом концертном зале «Симфон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а был 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жазовый оркестр создали в короткие сроки, сегодня в составе – 16 высоко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музыкантов. Руководит коллективом московский композитор Федор Сенчуков, который привнес в работу творческой команды свой опыт и музыкальное видение. К слову, ранее он уже имел возможность соприкоснуться с островной культурой

и написать музыку для нескольких спектаклей Чехов-центра и филармонии.

Идею о создании джазового оркестра вы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когда мне предложили возглавить такой коллектив, меня это заинтересовало и вдохновило. Писать и исполнять музыку – знакомая тема. Руководить оркестром – совсем другое. В коллективе объединились талантливые музыканты из разных уголков нашей необъятной Родины. Есть среди них и сахалинцы. Был кастинг, и многие очень хорошие музыканты откликнулись, – поделился руководителем Сахалинского джазового оркестра Федор Сенчуков.

К совместным репетициям оркестр приступил в сентябре, и всего за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собрал полноценную программу. По словам Федора Сенчукова, это только половина разученного материала. Для концерта выбрали разнопланов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которые близки каждому музыканту в оркестре. И вместе с тем, выбор пал на самые красивые композиции, чтобы подарить праздник зрителям.

На своем первом концерте джазовый оркестр исполнил произведения Генри Манчини, Куинси Джонса, Билли Стрейхорна и встретил горячие аплодисменты поклонников джазовой музыки.

А в первом отделении концерта эмоции зрителям дарил юные музыканты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дирижера Даниила Пака. Ребята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великолепное звучание труб, саксофонов, флейт и других духов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исполнив шедевры классики и популярные хиты.

Детский духовой оркестр «BraVo» создали в 2022 году на базе центральной детской музыкальной школ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За свою небольшую историю коллектив добился впечатляющих результатов. Ребята неоднократно становились лауреатами всероссийски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онкурсов, вошли в пятерку лучших детских духовых оркестров страны. Юные таланты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ют в праздниках и фестивалях, а в планах – стать первым маршевым оркестром Сахалина.

Мы хотим, чтобы в нашем регионе насыщенность 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была, как в столичном городе. Мы уже создали симфонический и эстрадно-симфонический оркестры, талантливые сахалинские певцы из Академии Ларисы Долиной становятся популярными. У джаза на Сахалине – тоже большое музыкальное будущее. Джазовый оркестр дал свой первый концерт и очень тепло был встречен зрителями, которые услышали новое звучание и расширили для себя горизонты музык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овый коллектив активно сотрудничает с преподавателями Академии джаза Игоря Бутмана, что позволяет музыкантам постоянн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ся в мастерстве. Впереди у оркестра – большие творческие планы, концерты, музыкальные спектакли.

Я просто в восторге! И от школьников, и от нового оркестра. Мы уже были на других концертах Сахалинского джазового фестиваля. Когда выступают звезды, чьи имена знает каждый, – это, конечно, услада для ушей. Но и наши музыканты показывают очень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 подел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ветлана Соловьева.

Отметим, по инициативе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культур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шла на новый виток развития. Художники получили современные мастерские и выставочные площадки. Открылись новая сцена Чехов-центра и филлиал Щукинского театрального института. Появился музыкальный театр, создан симфонический, эстрадно-симфонический и джазовый оркестры. 76-й сезон Сахалинской филармонии стал наиболее продуктивным за всю историю учреждения. Коллективы провели более 300 мероприятий, подготовили более 70 новых программ. Гостями концертов и других культурных событий стали свыше 140 тысяч человек.

Юбилейный, X Восточ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форум состоится с 3 по 6 сентября 2025 года

Организационный комитет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принял решение, что очередное, десятое по счету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йдет с 3 по 6 сентября 2025 года. Как и прежде, место проведения – Владивосток.

«Юбилейный, X Восточ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форум пройдет с 3 по 6 сентября 2025 года и станет знаковым событием, которое,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покажет достижения последних лет, а с другой – станет площадкой для создания новых точек роста экономик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всей страны. За эти годы благодаря реал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и решениям, принятым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олях ВЭФ, изменился не только регион, но и его влияние на экономику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Благодаря вкладу каждого участника мероприятия в развитие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оцио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внутр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и с иностранными партнерами Форум стал мощнейшей площадкой, экономическим плацдармом для укрепления отношений с соседними странами», – отметил советник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ветственный секретарь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го комитета ВЭФ Антон Кобяков.

Прошедшие за эти годы форумы задали высокую планку юбилейному мероприятию. В период с 2015 по

2024 год на Восточн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форуме было подписано 2480 соглашений на общую сумму свыше 29 трлн рублей.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заключенных соглашений включал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х объектов, развитие энергетики, горнодоб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ранспортной и логистической сетей, а также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В 2025 году участникам предстоит дальнейшая работа по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ов и решений по укреплению экономики макрорегиона с учетом целей и задач плана по достижению национальных целей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осточ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форум стал одним из инструментов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всей страны. На Форуме поднимаются самые актуальные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вопросы развития ДФО и всего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Все решения направлены на то, чтобы повышалось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ов, а сам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становился точкой притяжения для инвесторов,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студентов и людей с активной жизненной позицией. Форум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укрепить международ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усилить партнерские связи с дружественными странами и привлечь новые инвестиции в нашу страну. В этом году было подписано рекордное количество соглашений по объему инвестиций, участие приняли более 7 тыс. человек из 75 стран мира. Началась подготовка к юбилейному, X Форуму. Уверен, что предстоящий Форум вызовет не меньший интерес у политиков,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и экспертов»,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полномоч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Юрий Трутнев.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работе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примет делегац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нашего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ЭФ стал важным инструментом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повышения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на островах. На этой площадке за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лет мы подписали 64 соглашения на общую сумму более 150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В их рамках должно быть создано свыше 5700 рабочих мест. Запущен ряд крупных проектов в энергетике, на транспорте, в образовании. Среди них – программа мероприятий по обеспечению устойчивой работы нашего электросетевого комплекса, создание центра водородного инжиниринга с опытным полигоном, продолжение газификации региона, модернизация Корсаковского порта, перевод транспорта на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е топливо. Мы налаживае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учеными кампуса СахалинТех 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отде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В результате будет ускорена разработка новых решений в интересах остров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повысится каче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в области. Также в рамках соглашения, подписанного на ВЭФ, строятся пять поликлиник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Холмске и Углегорске. Эту работу, которая ведется в интересах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мы будем продолжать», – сообщи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грамма форума 2025 года будет включать в себя дискуссии,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выработку единых механизмов и решений для концентрации усилий по укреплению экономики ДФО и всей страны. Главны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е достижения,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потенциал, ключевые проекты в различных сферах, а также культур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ов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на выставке «Улиц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оторая традиционно пройдет в рамках ВЭФ.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риглашают на общественные обсуждения по проекту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на 2025-2027 годы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ится 20 ноября в 14.00 в зда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проспект, 32 (зал «Кунашир», 2-й этаж). Трансляция будет доступна в эфире телеканала «ОТВ-Сахалин» и в официальной групп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 ВКонтакте, а также на RuTube-канал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проектом главного финансового документа на ближайшую трехлетку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познакоми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Затем желающие смогут задать свои вопросы и озвучить предложения.

Для участия в мероприятии необходимо подать заявку до 17 ноября включительно в интернет-приемной на сайте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оле «Текст сообщения» необходимо указать «Участие в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суждениях». Здесь же можно оставить свои предложения и замечания по теме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суждений. Чтобы пройти в здание, участнику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ъявить документ, удостоверяющий личность.

Во время проведения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суждений в здании дом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 прием обращения граждан.

С информационными материалами о проекте закона «Об областном бюджет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2025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26 и 2027 годов» мож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на портале Открытый бюдже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м же содержи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главном финансовом документе в упрощенной для жителей форме – в виде брошюры «Бюджет для граждан».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글로벌 코리아 1

한국계 미국 작가 김주혜, 러시아 톨스토이 문학상 수상 '작은 땅의 야수들' 해외문학 부문 영예

한국계 미국 작가 김주혜가 장편소설 '작은 땅의 야수들'로 2024 러시아 톨스토이 문학상(야스나야 폴랴나상) 해외문학상을 수상했다.

김주혜는 10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볼쇼이극장에서 열린 톨스토이 문학상 시상식에서 '작은 땅의 야수들'을 러시아어로 번역한 키릴 바티긴과 함께 해외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톨스토이 문학상은 톨스토이 탄생 175주년인 2003년 삼성전자 러시아법인이 러시아의 '레프 톨스토이 박물관'과 함께 제정한 상으로 러시아 최고 권위의 문학상으로 평가받는다. 김주혜는 해외문학 부문 최종 후보 10개 작품 중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올가 토카르추크 등을 제치고 영예를 안았다.

이날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해외에서 한국 문학의 저변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일제강점

기 한반도를 배경으로 한 한국계 작가의 소설이 톨스토이·도스토옙스키의 나라 러시아에서 인정받은 것이다.

김주혜의 데뷔작인 '작은 땅의 야수들'은 일제 식민지 시절 한반도라는 작은 땅에서 투쟁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풀어낸 장편소설로, 국내에는 2023년 다산북스를 통해 출간됐다.

러시아에서는 바티긴의 번역으로 인스피리아에서 출간됐다.

다산북스에 따르면 심사위원 파벨 바신스키는 기자회견에서 이 작품에 대해 여기에는 짐승들이 있다.

그중 호랑이는 한국 독립의 상징이다.

나는 이 작품을 알렉세이 톨스토이의 '갈보리로 가는 길'에 비교하겠다"며 "정말 잘 쓰였고, 투명하고 성숙한, 젊은 작가로는 놀라운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재외동포의 창, 2024년 10월호)

울릉도아리랑경창대회, 사할린동포 특별상 수상

11월 9일 울릉도문화예술회관
(주)국악신문 기미양 대표와 가수 정광태 공동진행
사할린동포 성기선 단장과 8인

지난 9일 울릉도아리랑보존회가 주관한 제2회 울릉도아리랑경창대회에서 사할린 동포들이 특별상을 수상했다.

경연대회와 축제는 (주)국악신문 기미양 대표의 해설과 함께 진행을 했고, 식전행사와 시상식 진행은 울릉도홍보대사 가수 정광태와 남세라 KBS아나운서가 맡았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관객 영주귀국 사할린동포들이 참여했다. (사)울릉도아리랑보존회(회장 황효숙)의 초청으로 참가하게 된 분들은 성기선 단장을 비롯하여 두브로위나 나탈리아, 이행욱, 송희순, 춘정애, 이영현, 이순예, 이정숙, 강명자, 신경자, 정양순 등 총 9명이다. 이 분들이 울릉도아리랑과 사할린아리랑 합창을 선사했다.

지난 2019년 사할린아리랑축제에서 최초로 황효숙 회장이 부른 울릉도아리랑이 동포사회에서 최초로 사할린에서 불려졌다. 그런 인연으로 오늘 사할린동포들을 초청했다고 한다. 다음 울릉도아리랑 가사에 "가시 싫은 왜병정에 소집장이 날아왔네"라는 강제징병 이야기가 나온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후렴)

가고싶은 고향은 못가게 되고/가시 싫은 왜병정에 소집장이 날아왔네 울릉도라 동해섬은 자물통 세상/한번 들어오면 나갈줄 모르네

우리네 서방님은 오징어잡이 갔는데/원수놈의 돌개바람은 왜 이리도 부노"

동포들이 경연대회 지정곡 울릉도아리랑을 배우면서 가사에 '소집장'이 와서 끌려가는 이야기가 나와서 놀라웠다고 한다. 부모님께서 늘 하던 말씀이기 때문이다.

황회장은 "울릉도아리랑에는 일제시대 당했던 상실감과 사할린아리랑의 정서가 온전히 녹아있다. 삶의 고단한 여정을 무릅쓰고 초청에 응해주신 사할린동포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경연대회를 마치고 오후 3시부터 시작한 축제 무대에서 동포들이 부른 사할린아리랑 가사는 이 울릉도아리랑과 내용과 정서가 상통한다. 특히나 울릉도에서 바다로 나가면 북해도를 건너면 바로 사할린이기 때문이다. 가사는 다음과 같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후렴)

내가 여기 왜왔나 왜왔나/우리님 따라서 내어기왔지

사할린이 좋다고 내어기 왔나/일본놈들 무섭어 따라왔지

우리 조국은 따뜻하네/땅에 못가고 내 여기 사나



우리 영감님은 왜 갔다던가/나만 혼자두고 자기만 갔네"

이 아리랑은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살던 '아리랑 할머니'로 유명한 정성에 할머니가 부른 사할린 아리랑이다. 고향은 경남 삼천포이고 18세 때 사할린 도로샤호조로스크 탄광에 징용으로 끌려온 남편을 따라왔다가 정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신나라 뮤직 '해외동포 아리랑-사할린 편' 음반으로 발매 되어 있다.

해설이 있는 아리랑축제로 진행되어 무대 출연자가 교체되는 시간 동안 각 지역 아리랑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와서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한편, 특별초청 고려인 가수 하바롭스크 게나지 김과 사할린 동포 정양순이 부른 '카레이스키아리랑'(작사 맹동욱)을 작곡한 분이 사할린 한인 중 유일한 작곡가 김 세르게이(김상호)선생이라는 사실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그는 사할린아리랑보존회 최 나타샤 회장의 배우자로 합창단을 함께 이끌고 있다.

전국사할린동포회 권경석 회장은 "우리 사할린 동포들을 위해 황효숙 회장이 경기도 양주 울정마을에서 서 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포항역에서 다시 택시를 타고 항구까지의 번잡함을 고려하여 대형버스를 대여해 주었다. 이러한 따뜻한 배려에 대해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축제 해설을 맡은 기미양 대표는 "우리 아리랑 식구들이 2016년 시작된 사할린아리랑축제에서 처음 만나서 매년 한국과 사할린에서 교류를 이어왔다. 2018년 12월 문경새재아리랑축제, 2019년 10월 리일중 3개국 동포와 전국 55개 지역 아리랑 전승단체가 함께한 서울아리랑페스티벌이 이루어진 광화문 광장과 크고 작은 아리랑축회에 초청되었다. 2019년 12월 사할린아리랑축제가 개최된 유즈노사할린스크시와 홈스크시에서 만났다. 코로나로 인해 교류가 끊긴 후 5년 만에 다시 울릉도에서 만나서 '(민족)공동체 결속에 기여하는 아리랑'의 대동정신을 구현하는 장이 되었다"라고 밝혔다.

(국악신문)

www.kukak21.com

[음성소식]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15주년...27명 거주 등

[음성=뉴시스] 연종영 기자 = 충북 음성군은 5일 음성읍 용광로 한빛복지관에서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15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공결 음성사할린한인 회장은 기념행사에서 "음성군에 거주하는 동포는, 적지만 서로 화합하고 이해하며 함께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 11월5일 사할린 한인 70여 명이 귀국하면서 음성군에 정착했는데, 지금은 사망·이주 등으로 27명이 거주하고 있다.

군은 사할린 한인 정착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 문화탐방, 장례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 5회 음성복지포럼 개최

충북 음성군과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는 5일 '5회 음성복지포럼'을 음성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포럼 주제는 '음성군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이었다.

강동대 이장희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가톨릭꽃동네대 조추용 교수가 발제했다.

우승정보대 이채식 교수, 증평노인복지관 정미경 관장, 충북사회서비스원 임소진 선임연구위원,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양순경 회장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음성군, 금빛리더 명작아카데미에 이금희씨 초청

충북 음성군은 5일 '금빛리더 명작아카데미'에 이금희 전 아나운서를 강사로 초청했다.

군이 금왕읍 일원에서 추진 중인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하나로 준비한 프로그램이다.

행사에서 이 전 아나운서는 금왕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와 지역공동체 화합에 중요한 '말'에 대한 고민과 해법을 제시했다.

금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인 군은 2025년 12월까지 금빛공감센터 건립공사를 완공할 예정이다.

이영애, 사할린 귀국 동포-독립운동가 후손 돕기에 2000만원 기부

배우 이영애 씨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됐던 사할린 동포와 형편이 어려운 독립 운동가 후손을 위해 써달라며 동아일보-대한적십자사 디지털콘텐츠 공동기획 프로젝트 '동행'에 2000만 원을 기부했다.

5일 대한적십자사 등에 따르면 이 씨는 "일제 강점기 때 일어난 희생과 고통을 입은 분들에게 써달라"며 9월 초 사할린 동포 돕기 캠페인과 독립운동가 후손 돕기 캠페인에 각각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 씨 측 관계자는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돌보지 못했던 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드리고 싶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계속 지원을 약속하며 2000만 원을 우선 기부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일제 강점기 피해자, 독립 운동가와 그 후손의 생활상에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이 이뤄지면 좋겠다는 뜻도 전달해왔다.

이 씨는 8월말 지인에게 '동행' 시리즈에서 귀국 사할린 동포 지원과 관련된 기사를 보내오며 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8월 보도됐던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에 대한 지원 부족 문제를 다룬 '깊은 상처 안고 돌아온 고국, 따뜻한 희망의 한끼'(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823/126653977/1) 기사다. 이후 수년간 단칸방을 전전해온 독립 운동가의 후손을 다룬 기사 '천석꾼 가세 기울어도, 독립운동 아버지 원망은 이제 안 해요'(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906/126887059/1) 기사를 본 뒤에도 기부 의사를 밝혔다.

이 씨는 독립 유공자와 참전 용사와 관련된 기관 등에 꾸준한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올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천안함재단에 5000만 원을, 8월 광복절을 맞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에 1억 원을 기부했다.

동아일보와 대한적십자사는 독립운동가 후손을 지원하는 기부 캠페인(아래 링크)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모금액은 기부금품법에 의해 관리되며 사용 내역은 대한적십자사 기부금품 모집 및 지출명세를 통해 공개됩니다.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Сейчас мы сосредоточились на детях из отдаленных районов. Для них разработан специальный формат, включающий проживание в гостинице. Это важно для комфорта наших юных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ов»,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туризм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ртем Лазарев.

В октябре был дан старт группам из Углегорского района.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ноября в столицу прилетели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и из Охи. Их ждет профориентационная экскурсия в Службу спасения «Центр обработки вызовов системы - 112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ездка на Оленью ферму, посещение самого большого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аквапарка «Аква Сити» и увлекательная игра «Патриот».

Сахалинских музыкантов, 전국 창작 예술경연 -축제에서 대상 수상

Сахалинских музыкантов в Веллики Нобогородде에서 개최된 <별의 탄생> 전국 창작예술경연-축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홈스크 아동예술학교가 전했다.

현악기를 전공한 이 아리나는 반주자인 안젤리나 제도와 함께 워토리아 유흐마노와의 지도 아래 앙상블의 일원이 되어 경연에 참가했다.

이번 축제는 '졸로토포예 아블로초코(황금사과)' 예술아카데미가 주최하는 가운데 러시아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сахалин의 앙상블에는 сахалин주 홈스크, 네웰스크, 아니와 등 3개 학교에서 선발된 어린 바이올리니스트들로 구성되었다.

경연을 치른 결과 바이올린 앙상블은 <기악 연주>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 수상으로 예술단은 내년 4월 23일에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갈라 공연에 초청을 받았다.

Сахалинские скрипачи взяли Гран-пр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Сахалинские скрипачи стали обладателями Гран-пр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фестиваля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Рождение звезды",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л в Великом Новгороде.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ДШИ Холмска. Выпускница отделения "Струнные инструменты" Арина Ли в сопровождении концертмейстера Анжелики Дедовой стала частью ансамбля скрипачей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Виктории Юхмановой. Ансамбль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Фестиваль организован академией творчества "Золотое яблоко" и проводится по всей России. В ансамбле собрались юные скрипачи из трех школ искусст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Холмска, Невельска и Анивы.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конкурса ансамбль скрипачей, в номинации "Инструментальное исполнительство" завоевал Гран-при. В награду коллектив получил приглашение выступить на Гала-концерте,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23 апреля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나는 엄마를 그린다> 기획, сахалин에서 개최

<나는 엄마를 그린다> 온라인 공모전이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의 아동들의 참가를 기다린다고 가가린 시공원 측이 전했다. 전 러시아 어머니의 날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 경연의 첫 단계가 11월 10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아동들은 자신의 그림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11월 20일(수)부터 22일(금)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11월 22일 14시부터 개표를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이날 14시부터 15시까지 어머니의 날을 기념하는 명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공연장에서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고, 작품들을 전시하며 우승자에게 상을 시상한다.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йдет конкурс «Я рисую маму»

Юных жител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иглашают участвовать в онлайн конкурсе "Я рисую маму".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городского парка имени Юрия Гагарина.

Конкурс пройдет в рамках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дня матери. Первый этап будет длиться с 10 по 19 ноября - время, когда можно подать свой рисунок. После, с 20 по 22 ноября, ожидается голосование. С 14:00 22 ноября начнется подсчет голосов. И, наконец, с 14:00 до 15:00 на концертной площадке во время праздничной программы, посвященной Дню матери, состоится объявление итогов и награждение победителей с демонстрацией их конкурсных работ.

<오프클릭(반향)> 제4회 음악축제의 갈라 공연 сахалин에서 조성돼

11월 26일(화)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 '옥차브리' 영화관에서 제4회 <오프클릭(반향)> 음악축제의 갈라 공연이 펼쳐진다고 영화.여가연합회가 전했다.

<오프클릭> 음악축제는 현대적인 형식의 창작활동 경연으로서 벌써 4회째 음악 활동가들, 무용단, 감독, 시나리오 작가들, 촬영가, 음향감독, 음악편집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이 축제를 통해 관객들은 24개의 작품들을 관람하며 감동의 흔적을 마음에 남길 수 있다. 경연의 시상 부문은 <우수 감독 작품>, <우수 촬영자>, <우수 영상편집>, <우수 연기>, <독창적 아이디어>, <대상>이 있다. 우승자 발표는 11월 26일(화)에 있으며, 공연에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На Сахалине состоится гала-концерт IV музыкального фестиваля «Отклик»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ККЗ «Октябрь» 26 ноября состоится Гала-концерт IV музыкального фестиваля «Отклик».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телеграм-канале «Кинодосуговое объединение».

«Отклик» — современный формат конкурсной твор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торый уже в четвертый раз объединяет музыкальных исполнителей, танцевальные коллективы, режиссеров, сценаристов, операторов, звукорежиссеров и мастеров монтажа. Зрители увидят 24 работы, каждая сможет оставить свой след в душе.

Номинаций несколько: «Лучшая режиссерская работа», «Лучшая операторская работа», «Лучший видеомонтаж», «Лучшая актерская игра», «Лучшая танцевальная видеоработа», «Оригинальность идеи» и «ГРАН-ПРИ». Имена победителей озвучат 26 ноября. Вход свободный.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5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25 г. — 692 руб. 9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l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